

漢代 및 南北朝時代의 圖書館史

白 麟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目 次

- I. 머리말
- II. 漢時代의 圖書館
 - 1) 時代的 概觀
 - 2) 漢時代의 學問
 - i) 儒學의 復興
 - ii) 漢代의 五行思想
 - iii) 歷史와 文學
 - 3) 漢代의 藏書館
 - i) 麒麟閣
 - ii) 天祿閣
 - iii) 石渠閣과 石室
 - iv) 延閣 廣內 秘府
 - v) 白虎觀
 - vi) 蘭臺와 石室
 - 4) 漢代의 圖書 整理
 - i) 後漢의 藏書
 - ii) 個人文庫
- III. 南北朝時代의 藏書事情
 - 1) 魏·晉·南北朝(三國 六朝時代)
 - i) 魏
 - ii) 西晉
 - iii) 東晉
 - iv) 宋
 - v) 齊
 - vi) 梁
- IV. 古代의 書籍의 形態
- V. 맺는말

I. 머리말

本稿는 國立中央圖書館 館報에 發表한 「中國 上古時代의 圖書館」의 續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 당히 同 館報에 連載해야 할 것이나, 事情上 不得已하여 題目을 바꾸어 本誌에 실게 된 것이다. 이점 양해 해주기 바란다.

本稿의 題目을 「漢代 및 南北朝時代의 圖書館史」라고 하였는데 이 兩朝 사이에 後漢과 魏·晉時代가 介在한다. 이 時代도 勿論 包含시켰지만 이들 各時代가 制度面에 있어서 時代的인 差異를 發見키 어려우며 또한

書籍의 形態面에서 볼 때 後漢時代의 종이의 發明으로 漢代와 南北朝時代의 冊 形態에 多少 差異를 보여주게 되나 여러 면에서 共通되므로 같이 취급한 것이다.

주어진 與件 아래에서 作成한 原稿이므로 未備한데가 많을 것으로 믿는다.

諸兄들의 指導를 받아서 後日 다시 改稿하겠다.

II. 漢時代의 圖書館

1) 時代的 概觀

漢朝를 일으킨 것은 劉邦이다 그는 山東의 沛 地方의 한 平民이었다.

前朝의 秦始皇帝가 無理한 政治를 하여 民心을 크게 잃게 되니 各地에서 不平不滿이 고조되었고 始皇帝가 死亡하자 民衆의 怨聲은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다.

各地에서 蜂起한 反亂者 中에서 가장 유력하였던 자는 劉邦과 또 하나의 山東 出身인 項羽이었다.

두 사람은 각기 많은 部下를 규합하여 그 勢가 가장 컸던 것이다. 처음에 이 두 사람은 서로 協力하여 秦의 暴政을 너머뜨리는데 成功함으로써 民衆은 그들을 영웅으로 마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후 얼마아니 하여 서로 相對를 의심하고 反目하게 되었다.

劉邦(高祖)은 처음에 그 勢力이 弱하여 項羽로부터 漢中王으로 封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巴蜀, 漢中의 豊富な 資源으로 實力을 갖추어 BC 202年 垓下의 싸움에서 項羽를 擊破하고 中國을 統一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長安에 王都를 定하고 漢王朝를 세웠다. 秦이 너무나 嚴重한 法治主義를 採擇하였기 때문에 失敗하였다는 것을 안 高祖는 法制를 늦추어 部分的으로 封建制度를 復活하여 郡·縣制와 併用된 郡國制 等을 行하여 人心의 收攬에 努力하였고, 3代의 文帝, 다음 의 景帝도 善政을 實行하였기 때문에 國力은 充實하게 되었다. 한편 漢朝는 封建 諸侯의 勢力의 增大를 막기 위하여 推恩의 令을 發하는 등 그들 勢力의 削減에 努力하고 吳·楚 七國의 亂의 平定을 계기로 하여 集權體制의 強化에 成功하였다.

西紀 前2世紀의 中葉에 即位한 武帝는 이 遺業을 받

아 中央集權體制를 確立하는 한편 儒敎를 官學으로 定하고 法家主義政治의 面貌를 갖추어 놓았던 것이다.

이 政治體制는 그후 2,000年間 中國의 各 王朝에 의하여 採擇되었으며 또한 武帝는 外方에 對하여 積極策을 取하고 國威를 伸長하였다.

그러나 잇달은 外征때문에 財政은 疲弊되고 겹쳐서 成帝以後의 外戚과 宦官이 權力을 혼들어 政治는 어지러워 졌다.

이리하여 西紀 前 8年 外戚 王莽에 의하여 國權을 빼앗기고 漢은 一旦 滅亡하였다. 여기까지를 前漢 또는 西漢이라고 한다.

王莽의 統治는 永續치 못하고 劉秀(光武帝)가 西紀 25年에 漢朝를 復興하여 洛陽에 都를 定하였다.

이 以後를 後漢 혹은 東漢이라 한다. 劉秀는 後漢 建國에 있어서 豪族의 힘을 빌었기 때문에 後漢 王朝는 처음부터 豪族 連合體的 性格이 強하였다.

2世紀 初 和帝時부터는 外戚이 政治에 容喙하기 시작하자 朝廷은 이것을 防備코저 宦官을 重用하였더니 다음에는 宦官들이 또 跋扈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에 對하여 儒敎的 教養을 가진 官吏나 儒生들이 反對運動을 일으켜 宦官의 反擊을 받고 黨綱의 刑이 行하여 졌으며 政治는 더욱 混亂하였다.

그 위에 北方, 西北方으로부터 異民族의 侵入으로 因하여 生活을 破壞 當한 農民은 各地에서 反亂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中央의 統制力이 弱化되니 地方에서는 豪族이 獨立化 할 傾向이 나타났고 群雄은 亂舞하게 되었던 것이다.

曹操의 子 曹丕 때문에 獻帝가 位를 빼앗기고 後漢은 亡하였다. 그러나 南方에서는 吳·蜀이 獨立하고 特히 蜀은 漢의 正統을 이었다고 일컬으며, 魏와 紛爭, 이로부터 三國時代가 된다.

2) 漢時代의 學問

圖書는 學問하는데 있어서 그 필수적인 것이며 그 結果로서 生産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學問과 圖書는 不可分의 關係이며, 따라서 圖書를 保存 혹은 利用하기 위하여 마련된 藏書館에 對한 研究에는 當時의 學問思想이 어떠한가 하는 것부터 먼저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儒學의 復興

儒敎는 秦에 앞서 이미 完成되었던 것이나, 秦始皇帝의 迫害를 받아 一時 衰退했던 것이다. 漢代의 初期에 이르러 諸學復興의 氣運이 비등하였으나, 그것도 中心의 思想이 없고 다만 法家 道家의 思想이 比較的 有力하였다.

漢武帝는 學問思想의 統一을 꾀하던 중 마침내 董仲舒의 意見을 들어 儒學으로써 國家 政治의 根本으로 삼

고 大學을 設立하고 五經博士를 두어 教育에 힘을 기울이니 儒學은 여기에 힘을 얻어 크게 隆盛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儒學者나 敎學 機關은 資料 不足의 時代이었던 것이므로 先秦 時代의 古書를 蒐集한다든가 이것을 讀解하는데 많이 苦心하였던 것이다.

그 뒤에 發表의 自由도 極히 制限되었던 關係로 字句의 注釋에 注力하였던 것이며 그것도 師傅을 이어 받은 것을 尊重하였던 것이니 이 風潮가 一代의 學風이 되었던 것이다. 이를 訓詁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後漢에 이르러 馬融, 鄭玄 等 博學多識한 學者가 나타나서 여기에 漢代의 訓詁學을 大成한 것이다.

ii) 漢代의 五行思想

中國 古代思想史에서 우리가 항상 觀心 깊이 생각하여 온 것은 漢代의 「陰陽五行說」이다.

五行說이란 宇宙의 모든 現象을 五個의 要素 即 木, 火, 土, 金, 水에 의하여 形成된 것으로 보는 思考方法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周易의 原理를 더욱 부연한 것이라고 보겠다.

五行을 陰陽 二元에 의하여 풀어보면 木과 火는 陽이고, 金과 水는 陰에 相當한다. 土는 陰陽을 相半한 中間에 위치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五行은 끈임없이 運行하여 天地自然에서 人事百般에 이르기 까지 이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와 같은 陰陽五行說에는 그 始終하는 思想으로 두가지 相異하는 說이 있다.

첫째는 相克說이고 둘째는 相生說이다. 前者는 德의 交替를 말하는 것이며, 後者는 德의 進化를 主張한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五行의 理致를 다 알고 說明하기 어려운 일이며 또 여기서 장황히 그에 對한 理論을 늘어놓을 必要도 없다.

다만 漢代에 있어서 代表的인 思想이 陰陽五行說이

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삼아 본 것이다.

iii) 歷史와 文學

漢代는 儒學에 있어서 큰 發展이 있었음은 더 말할 바 없거니와 歷史學과 文學에 있어서도 特記 할 時期이다.

歷史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아는 司馬遷의 「史記」 130卷은 中國의 歷史로서는 代表的인 것이며, 그것은 黃帝로부터 前漢 武帝까지의 通史이다.

이것의 史體를 後世의 史家들은 紀傳體라고 하는 바 孔子 以來의 紀言體나 編年體와는 달리, 木紀, 世家, 書表, 列傳, 等으로 區分하여 編纂하였는데 이것은 後世의 正史의 基本이 되고 있다.

司馬遷은 史料를 수집하는데 만도 20餘年을 소비하였다고 하며, 그 文章도 雄健하여 後世 歷史書의 模範이 되고 있다.

史記와 함께 漢代의 歷史書로서 有名한 것은 後漢 班固의 漢書이다. 이 漢書는 班固와 그의 妹弟인 班昭 두 사람에게 의하여 집필된 前漢 一代의 正史인 것이다.

漢代의 文學은 五言, 七言의 詩가 새로 流行되었으며, 司馬相如는 賦라는 韻文에 能하였다고 한다.

3) 漢代의 藏書館

漢書의 蕭何傳에 보면 「收秦丞相 史律令圖書藏之」라는 글이 있다. 이것은 藏書에 對한 中國史料에서 보는 最古의 記錄이다.

即 漢高祖 沛公이 秦의 首都 咸陽 땅을 攻擊했을 무렵에 그의 參謀이었던 蕭何가 먼저 入城하여 秦의 丞相御史의 律令圖書를 건우어서 이를 藏置하였다는 것이다.

蕭何가 노획한 秦代의 遺書는 石渠閣에 藏置하였다는 바 그 數量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記錄에 없어 알 수 없으나 石渠閣이란 名稱이 있게 된 것은 蕭何가 이 閣을 建立할 때에 閣 아래에 磬石으로서 도랑(渠)을 만들고 물을 끌어 들였다고 해서 石渠閣이라 이름하였다는 것이다.

成帝時에도 여기에 秘書를 藏置하였다고 하는 바 班固의 藝文志에 의하면 成帝는 謁者(內侍府의 벼슬아치) 陳農으로 하여금 遺書를 天下에 求集케 하였으니 四方에서 文籍이 많이 出現하여 이들 書籍을 모아 書府에 같이 儲藏하였다는 記錄이 보이는데 여기에 書府라 한 말은 이 石渠閣을 指稱한 말인 것으로 推測된다.

어쨌든 이 石渠閣은 禁中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宮 밖에 位置하였던 것은 確實視되는 바 「奎章閣志」에 「漢有石渠室於外者…」라 한 것으로 보면 하나의 外閣과 같은 存在인 것으로 推測된다.

또한 漢高祖가 即位(B.C. 206)한 뒤 그는 重金으로서 民間의 遺書를 買入하여 이것을 內府에 藏藏하였다

고 進한다.

여기서 우리는 漢代에 있어서의 收書와 書籍의 購入 그리고 그것을 藏藏하던 文庫의 名稱을 「內府」라고 稱하였음을 알 수 있거니와 秦始皇帝의 焚書 以後 民間에 殘存하는 書籍을 이때에 이르러 集書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때에 收集된 數量이 얼마인지는 記錄에 자세치 않아 알기 어려우나 그것은 國家가 書籍이 所要되었기 때문에 그와같이 重金을 내어 購入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確히 짐작이 가는 일이다.

그리고 漢高祖時에 宰相이 된 蕭何는 石渠閣을 짓고 入闕한 뒤에 얻은 前朝 秦의 典籍을 여기에 儲藏하였다 이와 같이 漢高祖는 前朝의 遺亡을 蒐集하는데 많이 努力하였거니와 다음 惠帝는 秦始皇帝로 인하여 挾書를 禁하여 오던 것을 廢止하고 民間人으로서 國家에 對하여 書籍을 바치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하여 많은 書籍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나 그러나 그때까지 國家에 藏書制度란 確立되어 있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確立된 것은 武帝時라고 推測되는 바 武帝는 藏書의 施策을 세워 藏書府를 設置하고 寫書官을 任命하여 書籍의 贍書와 함께 그 保管을 責任지게 하였으니 이가 곧 秘書制度인 것이다.

그 후 漢朝의 藏書 事業은 더욱 발전하여 여러개의 藏書閣이 設置되었는 바 그 中에서도 特히 有名한 것은 麒麟閣, 天祿閣, 石渠閣, 石室 等이다. 아래에서 漢代의 藏書閣에 對한 것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i) 麒麟閣

이 殿閣은 前漢 武帝時에 建立된 藏書閣이었다. 이 閣은 漢室의 宮殿인 未央宮內에 있었던 것으로 當時의 宰相 蕭何가 建立한 것이라고 한다.

이 閣을 建立하게 된 동기에는 펍 재미있는 일화가 傳해져 있다. 即 「前漢書 帝紀 六 武帝」에 의하면 武帝가 그 16年() 10月 어느날 狩獵을 나가 흰 기린(白麟) 한 마리를 生捕하였는 바 中國의 古代 思想에서 볼 때 기린은 瑞光을 상징하는 動物로서 이것은 國家로서 大端히 祥瑞롭고 慶事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國家는 即時 年號를 바꾸어 「元狩」라 改元하고 또 「白麟之歌」를 지어 부르게 하는 등, 이 일을 크게 慶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宰相 蕭何는 이 일의 길이 記念하기 위하여 未央宮內에 새로 殿閣을 지어 이것을 麒麟閣이라 이름하고 여기에 典籍을 藏藏하는 한편 賢才를 모아 學問을 議論하는 國立圖書館으로 하였던 것이다.

ii) 天祿閣

이 殿閣도 宮中에 있었던 藏書閣이었다. 이것이 어

는데 建立되었는지 確實치 않다. 一說에 의하면 天祿에 지었다고 하는데 그 天祿이 어느때 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成帝時에 劉向과 揚雄 등이 이 閣에서 秘藏된 書籍을 校合했다는 事實로서 미루어 보아 成帝以前에 있었던 것임은 틀림없는 것으로 推測된다.

殿閣의 이름에서 보는 天祿이란 말은 “天의 帳簿” 또는 “天의 記錄” 即 天子의 記錄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해석컨데 그것은 李朝의 奎章閣과 같은 것으로서 設立되었음이 짐작된다.

어쨌든 이 天祿閣은 麒麟閣과 함께 漢代의 國立圖書館으로서 有名하였던 것이며 또한 이 兩閣은 漢代의 國立圖書館 機構上 李朝 奎章閣의 內閣(本閣)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iii) 石渠閣과 石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漢高祖時에 蕭何가 먼저 入闕하여 奏의 丞相御史 律令圖書를 거두었고 그후 石渠閣을 建立하여 여기에 이들 圖書를 藏置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漢代의 藏書閣으로서 가장 먼저 建立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을 石渠閣이라고 불리우게 된 理由는 위에서 말했거니와 이 閣의 규모가 어떠한지는 자세히 알지못한 화려한 建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石渠이라는 名稱으로도 짐작된다.

내려와 成帝時에 여기에 많은 秘書를 藏置하였고 또 漢書의 施讎傳에 이르기를 甘露中(月)에 五經의 諸儒와 異同을 이 閣에서 議論하였다고 하나 成帝時에는 이 石渠閣이 機能이 擴大되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그런데 石室에 관한 記錄 文獻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다만 이것이 石渠閣과 같이 外閣으로서 漢代의 藏書處였다는 것 外에는 더 이상 알려진 것이 없다.

漢代의 藏書制度를 考察하건데 그것은 內閣과 外閣의 制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奎章閣志」에 「漢有麒麟天祿於內又有石渠室於外者內外相維也」라고 한 것으로서 짐작 되거니와 漢代의 國立圖書館의 機構上 麒麟閣과 天祿閣은 內閣으로서 存在하였으며 石渠閣과 石室은 外閣으로서 存在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IV) 延閣, 廣內, 秘府

史記에 의하면 外에는 太常 太史 博士의 藏書가 갖

漢和大辭典 卷12, p. 916

漢書蘇武傳, 注에 「張晏曰武帝獲麟時作此閣」

「三輔黃圖漢宮殿疏」麒麟閣 蕭何造 以藏秘書處覽才也」

麒麟殿 「三輔黃圖」未央宮有麒麟殿

「漢書翼奉殿」麒麟鳳皇白虎玉堂

漢和大辭典 卷 3, p. 516

「漢書揚雄傳」時雄校書天祿閣 「三輔黃圖」天祿閣

藏典籍之所 「班固西都賦」又有天祿石渠典籍之府」

추어져 있고 內에는 延閣 廣內 秘府가 있어서 百年間의 書籍이 集積되어 그 量이 泰山과 같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漢代의 藏書의 量을 과시하는 뜻으로 생각되는 바 太常 太史 博士는 藏書處의 名稱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藏書管理者의 官名인 것이다.

다만 延閣, 廣內, 秘府는 名稱 그대로 藏書所인 것을 알 수 있으나 이것들이 어느 藏書閣의 代稱이 아니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V) 白虎觀

漢代의 藏書處였다고 한다.

李善注 三輔黃圖에 “未央宮有白虎殿”이라 하였으니 前漢時의 大都 長安의 未央宮內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殿閣의 名稱은 白虎殿이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班固의 西都賦에 “金華玉堂白虎麒麟”이라 한 것을 보면 이것이 麒麟閣과 같은 學士之署인 것으로 推測된다 前漢時代에 있어서 그 機能이 없어서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漢書 王商傳에 「軍于(匈奴의 王) 來朝引見白虎殿」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 外國의 使臣도 때로는 여기에서 接見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내려와 後漢의 章帝時에 博士 議郎 諸生 등을 白虎觀에 會同하고 五經의 異同을 議論하였다는 記錄이 보이니 이때는 洛陽으로 遷都한 東漢時代의 일이니 未央宮內의 白虎觀과는 다른 것이다.

VI) 蘭臺와 石室

前漢時 宮中에 있었던 藏書處였다고 한다. 「漢書 百官 公卿表」에 「在殿中 蘭臺掌 圖籍秘書」이라 記하였고 「宋書 白官志」에도 「漢西京圖籍所 藏有天府石渠蘭臺石室 延閣廣內之府是也」이라 한바와 같이 蘭臺와 石室이 前漢時의 藏書處인 것은 確實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故事成語考」의 文事에 보면 「典籍儲藏皆蘭臺石室」이라 記하였는 바 이것이 前漢의 藏書處에 對한 말이라면 當時에 主되는 藏書處가 蘭臺와 石室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後漢이 洛陽으로 遷都할 무렵에 여기에 있었던 藏書를 옮기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後漢書의 王允傳」에 「董卓遷都關中 允悉收斂蘭臺石室, 圖書以從 既至長安 皆分別條上 經籍具存關允有力焉」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 東漢時에도 前漢時代로부터 전하는 書籍이 舊都 長安에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이 推測된다.

어쨌든 石室은 一種의 藏書處에 不過했다고 보여지나 蘭臺는 단순한 藏書閣이 아니고 때로는 여기에 一定한 官吏가 任命되어 圖書와 함께 特定한 任務를 면 官署였던 것으로 推測된다. 即 通典의 「歷代職官表, 文淵閣職, 唐」에 唐改 秘書省 曰 蘭臺者, 取 漢殿 中 蘭臺掌 秘書 之義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것이 唐代

의 秘書省과 같은 機關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蘭臺는 後代의 秘書省의 前身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옛날의 秘書省은 오늘날의 秘書職과는 그 任務가 달라서 주로 國家의 典籍을 管掌하는 職이었던 것이다.

秘書省의 來歷을 살펴 보면 그것이 後代에 와서는 秘書監, 校書監, 校書館 등으로 그 名稱이 바뀌어지면서 그 任務에도 多少 變化가 있게 된다.

어쨌든 後漢代에 와서 이것이 校書館과 같은 所任을 맡아 보았다는 事實은 「後漢書 百官志」에 「蘭臺令史六百石 注 掌奏印工文書」云云한 것으로 알 수 있거니와 「後漢書班固傳」에 「除蘭臺令史」云云한 것과 또 同書 「成, 世祖本記」에 遷爲郎典校秘書又作列傳載記」云云한 것을 보면 여기에 特別한 官職을 두어 職務를 맡아 보게 하였으며, 또 그 待遇도 充分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4) 漢代의 圖書整理

中國에 있어서 分類法과 目錄法은 前漢의 劉向 父子에 依하여 創始된다고 말 할 수 있다. 目錄作成에 있어서 分類法이 시도된 最初의 書는 七略(書籍解題書의 名)인바 이것은 漢의 劉歆(字는 子駿)이 撰한 것이다 成帝時에 그의 아버지인 劉向이가 中書省과 秘書省 所管의 圖書를 校閱할 때 屢번히 그 篇目을 條書하여 그 指歸를 論하고 그 訛謬를 辨論하여 「別錄」(七略別錄) 二卷(玉函山房輯佚書)을 作成하였던 것이다.

그의 아들인 劉歆이 前漢末에 哀帝의 詔諭로 父親의 遺業을 繼承하여 漢나라 藏書閣인 天祿閣의 書籍을 節略하여 建平 元年(BC 6年 新羅 赫居世王 52年) 春夏月에 이를 完成하였다. 이것이 前漢代의 代表的인 書籍의 目錄인 것이다. 七略이라 함은 圖書를 類別하는 名稱이다. 卽, 集略, 六藝, 略, 諸子略, 詩賦略, 兵書略, 術數略 및 方技略이다. 이 七略은 中國에 있어서 圖書分類法 및 目錄學의 端緒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中國目錄의 起元이 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1) 後漢의 藏書

後漢은 英邁한 光武帝가 그 기틀을 마련했고, 다음 明帝와 章帝는 이를 더욱 굳혀 守成의 大業을 成就하니 前半 60餘年間은 富強하여 太平盛世를 구가하던 時期이다.

後漢(東漢)의 光武帝는 帝位에 오르자 곧 長安으로부터 大都를 洛陽에 옮겼다. 이때에 洛陽으로 싣고간 經牒秘書는 二千餘輪에 達했다고 한다.

그는 政治에 있어서도 最善을 다하였거니와 大學을 復興하고 儒敎를 獎勵하였으며 野에 묻혀 있던 賢士를 불러들여 優待하니 學術은 점차 盛況되었다.

後漢(東漢)의 文庫 名稱을 찾아 본바 石室, 蘭臺, 東觀, 白虎觀, 仁壽閣 등이 있는데 이들은 앞의 셋은 前

漢代의 그것과 同一한 名稱이며 다만 白虎觀과 仁壽閣만이 새로 보이는 名稱이다.

이들 文庫에는 光武帝 時에도 書籍이 藏在했었지만 실은 明帝와 章帝時에 이르러 더욱 充實하게 된 것이다.

卽 明帝와 章帝는 다같이 學問을 깊이 崇尚하였으며 더욱이 經術을 重하게 여겼기 때문에 四方으로부터 鴻生鉅儒의 帙을 질머지고 遠거리에서 오는 사람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 이때에 後漢의 文庫, 石室, 蘭臺의 內容은 더욱 充實하게 되었다고 한다.

章帝의 建初 4年(AD 79)에는 諸儒를 白虎觀에 集하여 五經의 同異를 講論케 하였으며 후에 班固가 이를 撰集하여 白虎通義 4卷을 냈다.

이와 같이 儒學이 獎勵와 함께 經書가 날로 늘어나는 한편 歷史書에 있어서도 많은 發展을 보았다.

恒帝時에는 秘書官을 두어 禁中圖書秘記를 맡게 하였다.

安帝時에도 거듭하여 五經博士를 불러 東觀의 五經, 諸子傳記, 百家藝術을 校正시켰다.

東觀은 周代의 以來 書館의 名稱이었는데 後漢의 明帝時에는 修史館이라 하였다. 이것은 禁中에 있었던 것으로 거기에는 많은 書籍이 藏在하였던 것이다.

班固는 前漢 高祖부터 王莽이 漢室을 篡奪한 A. D 8년까지의 歷史書를 撰하였는 바 이것이 漢書이다.

東觀과 仁壽閣에 藏在한 書籍은 校書郎인 班固와 傅毅으로 하여금 이를 管掌케 하였는 바, 班固는 前漢 劉歆의 七略에 따라 「藝文志」라는 圖書目錄을 作成하였다. 當時에 後漢이 所有하고 있었던 書籍은 모두 이 藝文志에 收錄된 것으로 안다.

이에 收錄된 內容은 現在로 전하여 우리가 當時에 어떠한 書籍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바 이것은 東洋 最古의 目錄書이다.

우리는 藝文志에 收錄된 書籍中에서와 같은 佛書名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또한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佛敎가 처음 中國에 傳한 것은 後漢의 明帝 10年의 일이다. 卽 明帝는 어느날의 꿈에서 黃金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보고 이것이 부처님인 것으로 靈感을 받았다. 그리하여 帝는 蔡愔 등을 西域의 大月氏國에 보내어 佛敎를 求하게 한 바 그들은 2年 後에 使命을 達成하고 도라오는 길에 僧과 함께 佛典을 가져다 바쳤던 것이다.

이로서 明帝는 洛陽에 白馬寺를 짓고 佛敎의 弘布에 진력하니 佛敎에 關한 書籍이 늘어나게 되었다.

董卓이 大都를 闕中에 옮김에 따라 官吏와 民間에 擾亂이 일어났고 이로 因하여 辟雍, 蘭臺, 宣明, 鴻都에

儲藏하였던 典籍과 文書는 많이 敢逸되었던 것이다.

後漢의 末葉 宮中에서 宦官의 勢力을 除去하고자 袁紹에 의하여 불립을 받은 將運 董卓은 大軍을 이끌고 王都 洛陽에 入城하면서 勢力을 掌握, 드디어 帝辨을 廢하고 그의 동생 獻帝를 세웠다.

그리고 何太後를 毒殺하고 나서는 그 暴虐이 더욱 자식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關東의 諸將은 袁紹를 中心으로 集結되어 董卓에 對하니 이에 못이겨 卓은 獻帝를 업고 A. D 189年 3월에 그 首都를 洛陽에서 長安으로 옮겼던 것이다.

이때 司徒(文教長官) 王允이 거두어 가지고 西歸한 書籍은 70餘집에 不過하였으며, 그것마저도 道路의 險艱으로 因하여 다시 그 半을 敢失하였다고 한다.

董卓은 長安에 遷都한 뒤에도 暴虐은 여전하였고, 이에 분개한 王允은 董卓의 部下 呂布로 하여금 그를 殺害케 하였다.

여기서 董卓의 權勢는 除去되었지만 그 후 王允도 呂布도 殺害되는 등 長安은 크게 騷亂하니 獻帝는 A. D 196年 7월에 본래의 洛陽으로 도망쳐 돌아갔다.

이와같은 騷亂으로 兩漢(前, 後漢)이 儲藏하던 文獻은 모두 煙滅되고 말았다.

ii) 個人文庫

漢朝는 儒學을 敎學의 中心으로 하였기 때문에 儒學의 發達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史學과 文學에 있어서도 많은 進展을 보였던 것이다.

儒學에 있어서는 董仲舒, 公孫弘이 有名하며 史家로서는 司馬談과 그의 아들 司馬遷의 이름이 높다. 詩人으로는 司馬相如와 枚舉 등이 나타나 燦然한 빛을 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學問의 風潮는 個人文庫의 發生을 자극하였다. 漢代에 있어서 個人藏書로서 그 이름이 잘 알려진 것은 河間王, 淮南王, 東平王, 匡衡 등의 藏書가 有名하였던 것이다.

河間王

本名은 劉德이라 한다 漢나라 景帝의 셋째 아들로서 河間王에 封하다 本來 學問을 즐겨 하였으며, 글씨에도 뛰어나 그의 遺墨은 現在도 傳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는 또한 有名한 藏書家로서 알려졌다으며 그가 蒐集한 書籍은 古文 先秦의 舊書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儒者로서 항상 行세하였으며 特히 山東地方의 많은 儒學者가 그를 따랐다고 한다.

淮南王

本名은 劉安이라고 한다. 漢高祖의 孫子로서 文帝때에 淮南王에 封하였다.

그는 小時부터 學術을 즐겨 하였으며, 蘇飛, 李尚,

左吳等 八人의 學者를 모아 道德을 講論하고 仁義를 總統하여 21卷의 著書를 남겼는데 이를 「淮南子」라고 한다.

「漢書藝文志」의 雜家列에 「淮南子」內21篇, 外 33篇으로 되어 있으나 現在에 傳하는 것은 內篇 21의 內容뿐이다.

그 內容은 古今의 治亂, 興亡, 吉凶, 禍福, 世上의 詭說 奇聞에 關한 記述인 바 그 主旨는 老子의 無爲恬淡에 가까우나 또 儒家의 說을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漢籍 分類에서 이를 雜家에 分類한다.

東平王

本名은 劉宇라고 한다. 宣帝의 넷째 아들로서 東平王에 封하였다.

그의 學德은 어떠한지 未聞한 탓으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漢代의 藏書家로서 그의 이름이 알려져 있다.

그가 蒐集한 書籍은 漢室과 거의 같은 정도였다고 하니 대단한 藏書 蒐集家라고 보겠다.

匡衡

以上은 漢나라의 皇族들이나 私人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藏書家는 匡衡이다.

그는 東海人으로서 字는 稚圭라고 하였다. 그는 儒學이 었을뿐 아니라 政治人으로서도 이름이 높다. 官은 太子少傅에서 累官하여 元帝時에 丞相이 되었다.

匡衡은 그의 學問을 琅邪(山東地方)의 師丹, 伏理, 旂君, 潁川의 滿昌, 君都에 傳하였다고 한다.(東洋歷史辭典, 平凡社 卷3 p. 107A 參照)

蔡邕

後漢 陳留의 사람이다. 字는 伯喈, 性品이 至孝하였었다.

小時에 벌써 博學하였고 辭章術數天文을 즐겨하였으며 音律에 妙를 얻었고 琴을 잘 했다고 한다.

靈帝時에 郎中이 되었고 그 후 高陽侯에 封하였다. 嘉平中에는 楊賜와 더불어 六經文字를 奏定 스스로 이를 篆書碑를 刻하여 大學門外에 세웠다고 한다. 그는 後漢의 大儒로 손 꼽히는 人物로서 詩賦, 碑銘, 書記等 凡 104篇의 著述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그의 藏書는 萬卷에 達했다고 한다.

Ⅲ. 南北朝時代의 藏書事情

1) 魏·晉·南北朝(三國 六朝時代)

魏·晉·南北朝라 함은 魏의 文帝(曹조)가 後漢 獻帝의 位를 禪讓받은 西紀 220년부터 三國(魏, 蜀, 吳) 兩晉(西晉, 東晉)을 거쳐 北朝 最後의 王朝인 北周가 滅亡하고 隋文帝가 中國을 統一하여 大帝國을 건설한 西紀 588년까지 370年間的 時期를 말한다.

南北朝는 西紀 439년부터 589년까지 150年間 揚子江

을 境界로 하여 相互 對立하던 것으로 南朝는 宋, 齊, 梁, 陳의 四朝이고 北朝는 北魏(後魏) 東魏, 西魏, 北齊, 北周의 五朝이다.

南北朝의 對立에 앞서 五胡十六國의 塞外民族이 中國本土를 占據한 時期도 있지만 그들 나라에 對한 것은 文獻이 稀薄하여 자세히 알기 어렵고 여기서는 魏晉과 吳·晉(東晉) 宋, 齊, 梁, 陳의 六國을 中心으로한 六朝時代의 書籍文化에 對한 것만을 論述키로 한다.

後漢末 外戚과 宦官의 專橫은 심했고 當綱의 禁을 이 르켜 政治가 紊亂해 짐에 民心은 離反하고 이 틈에 黃巾의 亂이 일어났다. (AD 183) 그러나 王室은 이를 鎮壓할 만한 힘이 없고 各地에서 群雄이 일어나 地方에 割據하니 董卓, 袁紹, 袁術, 公孫讚 등의 힘을 얻어 宦官의 橫暴과 黃巾의 亂을 鎮壓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일어난 것이 魏의 曹操이다 그는 地方의 群雄을 討伐하고 獻帝를 許(河南省, 許昌縣)에 迎立하니 大都是 主人없는 곳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後漢의 典籍은 散逸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曹操는 獻帝 13年(AD 208) 鄴에서 魏周公이 되었고 또 丞相(總理大臣)이 되어 政權을 掌握하고 同 16年(AD 211) 魏周王에 進封되었다.

唐六典 集賢殿書院條에 「遭王恭董卓之亂 掃地皆盡 魏氏採掇遺亡」이라 한 것은 遭難가 魏왕이 되어 鄴에 있을 때의 일이라고 생각되며 그는 前漢 以來의 典籍으로서 散失되고 남은 것을 거두어 秘書省으로 하여금 이를 管掌케 하였던 것으로 推測된다.

어쨌든 曹操는 魏王으로써 秘書令과 丞二人을 두고 尙書의 奏事業務를 맡게 하니 이는 中書의 任務와 같은 職이 있으며 圖書秘記를 兼任케 하였다.

魏(曹操) 初에는 秘書가 小府에 屬해 있었고 王肅을 監으로 삼아 秘書의 職을 맡게 하니 곧 漢代의 東觀의 任務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어찌 小府에 豫속시킬 수 있겠는가 하여 이로부터 以後는 다시 이에 屬하지 않았다.

「魏志」에 建安末頃에 劉邵를 秘書郎에서 秘書丞으로 轉任 시켰다는 記錄도 이를 뜻하는 것이다.

i) 魏

曹操의 아들 曹丕(文帝)가 後漢의 獻帝로부터 帝位를 강제로 물려 받아 國號를 魏라 하고, 王都를 鄴(河南省 臨漳의 南西)으로 옮길 무렵에는 이미 前漢 以來의 典籍은 大部分 散逸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 魏는 남은 書籍과 民間에 흩어져 있는 書籍을 거두어 들어 秘書省에 收藏하고 秘書監으로 하여금 管掌하였던 것이다.

魏文帝() 黃初(末年) 中에는 秘書省을 나누어

中書省을 獨立시키고, 監, 令을 두었으며 또 散騎常待 王象을 秘書監에 任命하여 「皇覽」을 撰遲케 하였다.

魏略 薛夏條에 「蘭臺는 外臺라 하고, 秘書省은 內閣이라」한 것으로서 魏代朝의 藏書制度가 後漢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推測되거니와 魏秘書 卽 鄭默은 「中經篇」이라는 目錄을 作成하였다. 그러나 이 目錄도 亡佚되어 當時의 藏書의 內容이나 그 量을 알기 어렵다. 魏는 文帝로부터 6代 46年間の 治政 끝에 晉에 의하여 滅亡되었다.

ii) 西晉

晉(西晉)에는 秘書閣, 中閣, 外閣 등 三閣의 宮中 文庫가 있었다.

唐律令 集賢院條에 「至晉 總括羣書凡二萬九千九百四十五卷」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그런데 荀勗가 秘書監이 되어 內府의 書籍을 校勘할 때 앞서 말한 魏中 鄭默의 著作인 「中經簿」에 의하여 새로 新簿라는 目錄을 作成하였다.

荀勗는 新簿를 作成함에 있어서 書籍을 甲, 乙, 丙, 丁의 四部로 類別, 甲部에는 六藝, 小學 등 書를 記하고, 乙部에는 諸子, 兵家術數의 書를 記하고, 丙部에는 史記, 舊事 皇覽簿雜事를 記하고, 丁部는 詩賦, 圖譜, 汲冢書를 記하였다.

이와 같은 荀勗의 分類는 簡略하게 되어 있지만 分類法上 類의 名稱을 代身하여 記號(甲乙丙丁)를 使用하였다는 것은 劃期的인 일이며, 注目 할 만한 것이다. 惠帝가 죽고 劉聰에 의하여 西晉의 都 洛陽은 陷落되고 懷帝가 잡혀 殺害되니 이때에 역시 많은 書籍이 亡佚되었다.

iii) 東晉

東晉의 官立의 藏書閣으로서 알려진 것은 東觀, 仁壽閣, 秘閣 등이다. 唐律에 의하면 東晉의 藏書는 3,014卷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全體의 數라고 볼 수는 없고 總藏書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어쨌든 東晉初에 著作 卽 李允이 荀勗의 新簿에 따라 目錄을 作成하였는데, 甲部를 五經數로 乙部를 史記數로 丙部를 諸子部類로 丁部를 詩賦類로 區分하여 經史子集의 順序를 굳혔다.

iv) 宋

六朝, 宋의 藏書館의 名稱은 總明觀이라 하였다. 宋元嘉 8年 秘書監 謝靈運이 四部目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收錄 圖書의 數는 4,582卷이다. 그 후 王儉이 다시 目錄을 作成하였는데 거기에 收錄된 圖書의 數는 모두 15,074卷이나 되었다.

王은 目錄을 編成함에 있어서 圖書를 經籍志, 諸子志, 文翰志, 軍書志, 陰陽志, 術藝志, 圖譜志 등 七志로 類別하였다. 이 七志는 凡 40卷으로 되어 있었으나

亡帙이어서 지금은 그 內容을 알 길이 없다.

v) 齊

齊에는 學士館이 있었고 또 秘閣이 있었다. 永明中에 秘書丞 王亮과 謝朓이 四部書目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收錄된 圖書는 18,010卷이었다.

그런데 齊末 廢帝 東昏條가 酒色에 빠져 橫暴을 자행하던 暗君이 忠義한 將軍 蕭懿를 죽이고 그의 동생 蕭衍이 擧兵하여 王都 建康(南京)을 包圍하고 東昏侯를 잡아 죽일때 齊의 典籍은 다시 亡帙되고 말았다.

vi) 梁

齊의 一族인 蕭衍이 齊를 넘어뜨리고 梁을 建國했다(502 AD) 이가 梁의 武帝이다. 그는 博學하여 特히 佛敎에 篤信하였으며 스스로 三寶의 下이라 하였다. 그가 都를 江陵으로 옮길때 公和經籍 7萬餘卷을 가져왔으며, 이를 文德殿內에 藏置하였다고 한다. 梁의 官文庫로는 文德殿과 華林園이 있었다. 梁初에 秘書監, 任昉과 段鈞이 四部目錄을 作成하였으며, 또 文德殿 目錄은 그 術數의 書를 다시 一部로 하고 租月恒은 이것을 擇하여 그 名稱을 五部目錄이라 하였다니 梁에는 五部目錄이 있는 셈이다.

阮孝緒는 目錄을 作成함에 있어서 圖書를 經典錄, 記傳錄, 子兵錄, 文集錄, 術技錄, 佛法錄, 仙道錄의 七部로 區分 著錄하고 이것을 七錄이라 이름 하였는데 凡 12卷이나 지금은 亡帙이다.

梁 武帝 以來(4世 56年) 丞相 陳霸先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 (557 AD)

梁나라가 亡할 무렵에 即 元帝 3年() 王은 大都 江陵(湖北省江陵) 이 北朝의 西魏에 包圍되고 存亡의 運命은 旦夕에 切迫하였을 때 그는 古今의 書籍 14萬餘卷을 불태우면서 「아아 文武의 道는 오늘 밤으로 다 하는구나」라고 嘆息하였다고 한다. 文武의 道는 周의 文王과 武王의 道를 말하는 것으로 即 聖人의 治道인 것이다. 或者가 그 말의 意味를 물으나 王은 「萬卷의 書籍을 읽었다고 해도 結局 오늘과 같이 나라를 滅亡시키고 말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나」고 대답했다고 한다.

中國에 佛敎가 傳來된 것은 後漢 明帝의 永平 10年(67 AD)이다. 그러나 그 當時에는 一般에 弘通되지 못하였으며 내려와 南北朝時代에 이르러서 널리 普及되었던 것이다. 六朝時代에 있어서 梁의 武帝는 大月氏(西域)의 迦膩色迦王과 함께 二大佛敎 保護者로 알려져 있다.

그는 三室의 下人이라고 自稱하였으며 國內에는 寺院을 3千個나 짓고 僧尼가 8萬名이나 되었다고 하니 當時 佛敎의 盛行을 족히 짐작할 수 있다.

南北朝에 있어서 譯經事業은 書籍 生産面에서 特記

할 사실이다. 即 大月氏人 竺法護(Pharmaraksa)의 洛陽에서의 300餘卷의 譯經, 西域僧 鳩摩羅什(Kumarajiva)의 長安에서의 大譯經 事業으로서 漢譯藏經이 많이 나왔고 또 東晉의 法顯과 같은 僧侶는 직접 印度에 求法하고 도라오는 길에 經律의 藏經을 가지고 오는 등 譯經과 藏經 收集이 活潑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佛敎가 盛行되고 同時에 經典의 數가 增大되어 梁의 阮孝緒가 그의 「七志」에 佛道門을 따로 獨立시킨 것도 그의 意圖에 짐작이 간다. 道敎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이 道敎는 原來 中國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南北朝時代에 이르러 비로서 하나의 宗教로서 完成하게 된 것이다.

特히 北魏 太武帝의 信仰을 받아 國敎로서 保護되었으며 그로 因하여 佛敎와 함께 大宗教로 發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當時 南方에 있어서는 老莊思想이 널리 唱道流行되었던 것이니 따라서 道敎에 關係되는 書籍이 多數 生産되었을 것으로 推測되며 「七志」에 道家門이 따로 있게 된 것도 이 때문인 것이라고 본다.

儒學이나 道佛敎에서 크게 發展하였거니와 文學 方面에도 불만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特히 六朝時代의 文體「四六駢麗體」는 四句, 六句의 對句를 일게 연결하는 武의 文體로서 漢大學에 있어서 形式上 優美를 자랑하는 것이다.

詩에 있어서서는 魏의 曹植을 으뜸으로 손 꼽으며 西晉에는 陸機, 陸雲의 兄弟가 있었고, 東晉에는 田園詩人의 祖宗이라고 하는 陶淵明이 있었으며 宋에는 山水詩人의 祖宗인 謝靈運이 있었고, 또 顏謝, 顏延史 등이 有名했다.

齊에는 가을 하늘과 같이 맑은 淸麗한 詩風으로 이름 높은 謝朓에 나타나는 등 六朝時代의 文學에는 實로 儕儕多士이었던 것이다.

梁武帝의 아들 昭明太子(蕭統)의 撰인 文選은 이 時代의 代表的 作家의 詩文을 모아 엮은 것이다.

漢代의 書籍이 어떠한가 그 體裁를 알아보는 것은 當時 圖書制度를 研究하는데 있어서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學問하는데 있어서 書籍은 絶對 必要한 것이며, 또 當時에는 아직도 종이가 發明되지 않았던 때 이므로 書寫의 材料에는 主로 木片 그리고 縑帛이 흔히 使用되었던 것이니 오늘날의 書籍의 形態와는 判異하기 때문이다.

IV. 古代의 書籍의 形態

古代의 書誌를 概觀컨대, 蔡倫 以前에 이미 書寫의 材料로서 絲質의 종이를 使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植物性 纖維의 紙가 發明되어서부터는 점차로 紙績, 唯一하게 通用되고 있는 書寫의 材料로 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大端히 緩慢한 것이었다. 2世紀부터 3世紀사이에는 종이와 緜帛과 竹簡이 同時에 東漢時代에는 竹簡과 素(생 명주) 등이 書籍의 重要한 材料로서 併用되고 있었다. 魏晉 以後에 이르러서는 점차 종이를 사용하여 만든 書籍이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官廳의 公文書는 역시 竹簡이 主였던 것이다. 그후 東晉의 末葉(4世紀中)에 桓玄은 命을 내려 “지난날 종이 없었기 때문에 竹簡을 使用하였지만, 至今에 있어서는 竹簡을 使用하는 사람은 代身 黃紙를 使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종이는 처음으로 簡牘의 地位를 박탈 普遍的인 書籍의 材料가 되었던 것이다. 東漢에서 南北朝의 時代에 걸쳐 社會는 屢 動搖되어 있던 時代였지만, 그러나 著書의 範圍와 數量은 그 以前에 比하면 많았던 것이다. 우선 歷史와 地理에 關한 著書에서 보아도 그것은 앞 時代를 훨씬 능가하였다. 우리들은 劉歆의 「七略」中에는 歷史書라는 分類가 없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

少數의 歷史書는 전부 六藝略 中의 하나인 春秋類에 들어 있었다.

西晉 初년에 荀勗은 甲, 乙, 丙, 丁의 4部로 分類法을 編纂하였는데 그중의 丙部는 史記(地志를 包括함)이다.

이처럼 歷史部門 書籍은 發達하고 盛況을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은 文集이 誕生한 일이다. 東漢 以前에는 個人的 文集은 없었고, 當時의 文學的인 著作은 大體로 單篇으로 流傳된 것이었지만, 東漢에 이르러 처음 個人的 文集(別集)이 나온 것이며 三國時代 以後에 이르러 더욱 많아졌다. 西晉의 摯虞가 編纂한 「文章流別志」는 諸家の 著作을 選擇하여 編集한 “總集”인 것이다. 이리하여 이 時代에 文集에 二種類를 主로 한 形式(別集과 總集)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時代에 文學批評이 시작되었다. 陸機의 「文賦」가 가장 빠른 著作이며 劉勰의 「文心雕龍」은 5世紀에 쓴 것으로서 卓越한 文學批評의 著作이었고 鍾嶸의 「詩品」은 詩論의 有名한 著作이 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科學技術方面에 새로운 著作이 나오고 있는 바 東漢의 張衡이 著한 天文學 및 天文儀器에 關한 書籍과 劉宋(南朝宋)의 祖沖之가 쓴 數學에 關한 著作은 天文史 및 數學史에 있어서 大端히 빛났던 것이었으나 아깝게도 失傳되고 말았다.

東漢의 張仲景의 「傷寒論」은 今日에 있어서도 역시 漢法醫의 寶典이며, 農業 知識의 面에서는 後魏의 賈思勰이 著한 「齊民要術」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現存하고 있는 最古의 農業에 關한 著作이며 5世紀에 있어서 中國의 農業知識을 總合한 것이며 大端히 有意義한 古典科學의 名著이다. 其他, 言語學, 文字學 面에서는 音

韻學의 研究가 시작하여 魏의 李登의 「聲類」나 梁의 沈約의 「四聲」은 中國의 音韻學에 對하여 어느 것이나 淸 影響을 미치게 하였다. 그리고 外國語의 傳來—즉 먼저 印度 및 西域 各國의 言語, 後에 이르러 中原의 匈奴, 羯, 氐, 羌, 鮮卑의 各 民族이 들어왔지만, 鮮卑族의 言語가 구별되어 傳來되어 왔고, 또한 翻譯學上의 研究나 外國語와 中國語와의 比較研究가 行하여 왔다. 이 時代에 文化를 發展시킨 새로운 要素는 佛敎가 傳來하였던 것이다. 佛敎는 兩漢의 사이(紀元—一世紀)에 中國에 들어왔다. 漢의 靈帝의 時代(紀元 168—189)에 이르러 譯經事業을 開始하였다. 安世高는 譯經의 第一人者였고 嚴佛調, 安玄, 康僧會 등이 이 事業을 繼續하였다. 西晉 初年の 竺法護는 當時 가장 많이 實行한 大師이다. 4~5世紀의 사이에는 鳩摩羅什은 長安에서 佛陀跋駄羅는 建業에서 共히 大規模의 翻譯事業을 指導하고 있었지만 그중 鳩摩羅什이 譯出한 經, 律, 論은 그 數量이 豊富하였고 文章도 훌륭하며 影響이 큰데 있어서 唐의 玄奘 以前에는 第一人者였다. 佛敎經典이 大量으로 譯出되었기 때문에 中國의 文化나 國民生活은 學術研究 以上의 것이었고 어느 것이나 深刻한 影響이 미쳤다. 6世紀 初年(梁代)에는 現存되어 있는 最古의 佛典目錄의 總合이라고도 할 수 있는 「出三藏記集」과 最古의 佛家總傳이라는 「高僧傳」이 出現되었다. 「出三藏記集」은 僧祐의 著作이였으며 傳記體의 目錄을 創造하여 中國 目錄學의 하나의 새로운 길을 開放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劉宋의 王儉이 編纂한 「七志」에는 이미 佛典에 對하여 專門의 部門을 開放하고 附志로서 揭示하고 있다. 그리고 僧祐와 同時代의 院孝緒는 「七錄」中에 있어서 佛典을 七錄의 하나로 보고 있다. 佛敎에 對抗하여, 中國人은 또하나의 宗教, 即 道教를 創立하였다. 道教의 起源이나 派別은 極히 複雜하며, 主要한 것은 東漢의 順帝時代에 張陵이 始作한 天師道였고 兩晉 南北朝의 사이에 大端히 流行하였다.

道教徒는 淸 많은 書籍을 썼다. 5世紀 時代의 宋의 사람 陸修靜은 書物을 集大成하여 道教로서는 最古의 目錄을 編纂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道藏이란 最古의 結集이다. 그것과 거의 같은 時代의 사람 寇謙之도 北方에서 그 整理를 行하고 있었다. 道教의 書籍, 一部分은 純粹한 迷信이지만 그래도 注意스러운 것은 그중에도 唯物主義의 傾向의 思想이나 初期의 科學知識, 특히 醫學의 著作과 化學의 萌芽(煉丹術)를 多分히 保存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中國의 思想史, 文化史, 科學史를 研究하는데 있어서 重要한 資料이다. 「七志」와 「七錄」에는 다 같이 道經을 專門部類로 하였다. 이리하여 생각되는 것은 2世紀부터 5世紀의 後期에 이르는 一段의 時代에는 中國의 學術은 지금까지

있었던 基礎 위에 다시금 상당한 發展을 보였으며 그 위에 여러 새로운 學問, 새로운 知識, 새로운 研究方向을 나타냈다. 이들의 書籍은 처음부터 종이에 쓰인 것이며, 材料를 求하는 것이나 書寫하는 것도 다 比較的 容易하므로 書籍이 流傳하는 것도 比較的 容易하였다.

佛敎徒는 특히 寫經에 熱心하였기에 佛典의 一部는 늘 많은 複本이 傳寫되어 分散 流傳되어 온 것이다. 이리하여 금일에 있어서도 역시 4世紀, 자칫하면 그 以前の 寫本을 發見할 수 있었다. 書籍의 生産이 比較的 容易하였기 때문에 書物을 所藏하는 것도 比較的 容易하였다. 그러나 社會는 動亂되어 있고 戰爭은 끊임 없고 搜集한 書物도 때때로 한차례 불이나면 그 損失은 다시는 고상이 안되는 故로 그 時代의 書厄도 썩 컸던 것이다. 東漢時代의 政府는 石室, 蘭台, 東觀 및 仁壽閣에 있어서 全部 藏書, 卽 “더불어 七略에 의하여 書部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東漢末年에 일으킨 大亂의 한창인 때 損失을 입었던 것이다. 西晉時代에 이르러 搜集, 秘書監의 荀勗은 當時 秘閣의 藏書를 整理하여 分類法을 重訂하며 目錄을 編集하고 있었지만 合計 29部 945卷의 書冊이 있었다. 그러나 東晉의 渡江後에는 李充이 政府의 藏書를 整理할 때 3,014卷밖에 남지 않았었다.

民族이 動亂을 일으켰을 때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큰 損失을 입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宋이나 齊나라의 書目은 어느것이나 一萬何千卷의 안팎이었다. 梁의 任昉이 編集한 나라의 藏書目錄에 의하면 佛典을 除하고도 約 23,106卷이었다. 이것은 以前에 比하여 훨씬 많았으며 梁의 元帝 때에는 江陵의 藏書는 7萬餘卷에 達하였지만 北周의 兵隊가 江陵에 侵攻하였기 때문에 또한 全部 燒失되고 말았다. 北方에서는 政府가 收藏하고 있던 書籍은 南方에 比하면 적지 않았다. 그 후 隋가 南北을 統一하고서는 政府의 藏書도 겨우 充實되어 갔다. 이때에 個人的 藏書가 逐次的으로 많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들이 所藏하고 있었다는 數量은 알 수 없다(記載되지 않았으므로) 그렇지만 書物에 揭示되어 있는 藏書家は 적지 않았다.

同時에 역시 注意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書籍은 이미 겨우 商品化 되어왔다는 點이다. 「後漢書」의 「王充傳」에 王充이 少年時代의 어느 때, 洛陽의 書肆에서 書物을 본 것을 記載하고 있지만 後漢의 中葉에는 이미 書店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梁의 元帝는 어느 때, 使者를 상가에 書物을 사라 보냈다고 말하였지만, 南北朝時代에도 書店이 存在한 것으로 생각된다.

南北朝時代에는 또한 書物을 專門으로 書寫하는 사람 특히 佛典을 代寫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들은 書籍

을 流通하는데도 사람을 부리었다. 그런 故로 이 時代에 있어서 書籍의 發達은 大端히 놀랄정도였다. 아득히 먼 簡策時代에 比할 것은 못되며, 이것은 當然한 일이지만 종이가 發明된 結果이다.

이제 이 時代에 있어서 書籍의 結말에 대하여 論述하자. 後漢時代에서는 竹簡, 縑帛, 紙 등이 併用하였으며, 더욱이 簡과 帛이 普通이 었다. 三國時代以後는 종이로 만든 書物이 점차 많았고 晉時代에 이르러 盛行하였다. 當時의 帛書는 大端히 영키어 있어 그 時代에는 一般的으로 “素”라고 불리우는 書寫專門에 使用하는 帛이 있는 것 같다. 素에는 “鳥絲關”이라던가 “朱絲關”이라 하던 것에 쓴 것인지 혹은 界行이 짜여져 있다. 魏晉의 사람이 “縑紙”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帛을 가리켜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後漢書」에 襄楷가 손을 내었다. 「太平清領書」170卷은 全部 “素書, 朱斤, 靈首, 朱目”이었고 매우 美麗하였다는 것이 記錄되어 있다. 魏晉以後에 이르니 이 種類의 素는 이미 通常 使用되는 書籍의 材料뿐만 아니라 貴族 文人들의 通信手段이었으며, 魏晉以後에는 素를 通信에 使用하는 사람은 점차 적어졌고 종이로 이미 書籍이나 平常의 書信에 主가 되는 材料가 되어 왔다. 初期에 있어서 紙製의 書物의 形式은 모두 帛書를 模倣한 것이다. 종이를 糊付하여 긴 卷物이 된 다음 棒으로 軸을 만들고 두루말이 一束한 것을 一卷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 種類를 卷軸制度라 規定하였다. 卷子本의 內部形式은 上과 下에 關이 있고 그 사이에 界線이 있다. 그러므로서 또한 鳥絲關이라던가, 朱絲關이라는 稱呼가 있으며 대략 5卷~10卷을 함께 帙로 싸던가 또한 이것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 書寫用的 종이는 一般的으로 黃蘗(나무의 外皮) 汁으로 물들인 것이며 그 색은 黃色으로 보이기에 黃紙라 하고, 桓玄令의 말 中에 指摘되어 있는 것은 결국 이 種類의 종이이다.

대체로 黃汁으로 染色하는 것은 蛙虫(木食虫·蟲)을 防止하기 위함이며, 이 方法은 “入潢”이라 한다. 中國 사람들은 아주 옛적부터, 결국 黃蘗汁으로 書籍의 用紙를 保護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二世紀의 末葉에 劉熙가 著한 「釋名」 中에 이미 “潢”이라는 것은 “染紙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5世紀 사이에 賈思勰이 著한 「齊民要術」 中에 “入潢”의 一節에는 黃蘗汁을 使用하여 染紙하는 方法이 詳細히 說明되어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確實한 證據이다. 賈思勰은 역시 一種의 薄紙로 書籍을 補修하는 方法(入紙法)과 어떤 特別히 물렁물렁한 糝로 用紙를 받는 方法(裏打法)을 說明하였다.

(21面に 계속)

을 믿었다』는 옛말을迷信해서도 안되지만 또 한편 繫辭·文言이 孔子의 작이 아니라 하여 곧 無價値한 것이라고 해서는 못쓴다. 우리들은 八卦를 그린 것은 上古에 六十四卦로 걸친 것과 卦辭·爻辭를 만든것은 周初에 卦辭·象辭로 만든 것은 잠시 孔子에게 繫辭·文言은 戰國 末年에 說卦·雜卦는 戰國 秦漢時代에 각각 歸屬시키어 이로써 各 時代의 心理·宇宙觀·人生觀을 觀察한다면 모두 價値있는 것이다.

易經과 易傳을 除外하고도 아직 『連山·歸藏·周易』의 問題가 있다. 周禮에서 이 세가지 易의 이름을 얘기한 以後 漢書藝文志에서는 뒤 連山·歸藏이라는 書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데 隋書經籍志에서는 도리어 歸藏 13卷이 있다고 말하면서 또한 『歸藏은 漢初에 이미 없어졌으나 晉中經에 있는데 다만 卜筮만을 실었을 뿐 聖人の 뜻으로 된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唐나라 때의 사람들 부터 벌써 참으로 있는책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連山에 대해서는 더욱이 아무런 말이 없었다. 다만 隋의 劉炫이 賞金을 타려고 一部를 僞作하였지만 當時에 이미 發覺되었다. 이 두 책은 아직도 있지만 우리들은 여기에 속아서는 안된다. 前人들은 『周易』의 『周』字를 「나라周」字로 看做하였기에 周나라에 易이 있었다면 夏·商에도 또한 易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周禮에 『夏連山·歸藏』이란 말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實은 『周易』의 『周』字는 「두루주」字의 뜻이지 결코 朝代의 이름은 아니라는 점도 우리는 明白히 해야 한다.

北宋 以後 易을 말하는 사람은 同時에 반드시 河圖·洛書와 太極圖를 말하고 있지만 그 以前에는 없던 것이다. 다만 繫辭에 『黃河에서 그림(즉 河圖)이 나오고 洛水(黃河支流)에서 책(즉 洛書)이 나왔다』 『易에는 太極이 있고 이것은 兩儀를 낳았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宋人들은 無에서 有를 만드는 格으로 河圖·洛書·太極圖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實은 우리가 한번 생각 해 보기만 한다면 五代의 道士들이 된 재주이지

결코 儒家의 것이 아니라 함을 알 수 있다. 最初에 陳搏이 易龍圖를 著述하여 種放에게 傳해 주었고 李溉는 許堅에게 傳해 주었고 許堅은 范鏗昌에게 傳해 주었고 范鏗昌은 劉牧에게 傳해 주었고, 種放은 여기서 易數 鈎隱圖를 지었는데, 이것은 完全히 河圖·洛書를 가지고 易을 解說한 것이 있다. 南宋에 이르러 朱熹도 대단히 이 說을 迷信하였는데 그의 易學啓蒙 第一篇은 이 圖書에서 根本된 것이다. 이로부터 數百年間 朱熹가 學界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도 敢히 이를 反駁하지 못하고 모두들 河圖·洛書·太極圖를 深奧·神秘한 學問으로 看做하면서 줄곧 淸初에 까지 이르렀다. 淸初에 비로소 몇몇 大師들이 서로 約束이나 하듯이 論難을 이르렀다. 그 첫째가 黃宗羲로서 그는 易學象數論을 지었고, 둘째가 黃宗炎으로 그는 圖書辨惑을 지었고, 셋째가 毛奇齡으로 그는 河圖洛書 原舛篇을 지었고, 넷째가 李塨으로서 그는 周易傳註를 지었고, 다섯째가 胡渭로서 그는 易圖明辨을 지었고 여섯째가 張惠言으로서 그는 易圖條辨을 지었다. 이들은 各各 充分한 理由를 들어 宋人들의 附會를 밝히고 河圖·洛書·太極圖는 本來 깊은 뜻이 없는 것임을 證明하였다. 그 중에 특히 「易圖明辨」이 가장 透徹하고 廣範하였다. 그들은 결국 數百年間 烏煙瘴氣에 묻혀있던 誤謬를 打倒한 것이다. 淸初에 朱子學이 盛行되었을 때 이러한 作業은 實로 重要한 것이었다. 지금은 이 問題가 이내 決定되었으니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 알면 足하다.

이 밖에 또한 子夏의 易傳과 焦氏의 易林 두 책은 모두 僞書이다. 漢書藝文志에는 子夏의 易傳이 없는데 隋書經籍志에 비로소 있다. 宋나라 陳振孫이 이미 그것을 僞作이라 하였고 明나라의 胡應麟과 淸나라의 姚際恒도 모두 일찌기 다시금 그것을 證明했다. 焦氏의 易林이 僞作인 것은 淸初의 顧炎武에 이르러 비로소 發見했으며 姚際恒도 다시금 그것을 證明하였다. 지금은 모두 問題가 없다.

(11面에서 계속)

現存된 5~6世紀의 寫本을 보면 비록 찢어지고 잘라졌어도, 그렇지만 좀이 侵蝕하고 脫丁한 現象이 없는 것은 賈思勰이 말하고 있는 防虫과 풀을 밟는 方法이 實際 有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中國에서는 먼 5世紀 以前에 이미 紙製의 書物을 保護하는데 大端히 좋은 方法이 實行된 것으로 思料된다.

V. 맺는 말

以上에서 前漢의 高祖가 長安에 入城하여 秦의 遺書를 蒐集하던 때 부터 南朝의 梁까지의 圖書館制度和 書籍形態의 變遷에 對한 것을 考察하였다.

첫째 前漢 武帝時의 藏書制度 即 이제 이를 要略하던 麒麟閣과 天錄 石渠石室 다시 말하여 內閣과 外閣制는 後代에 와서도 繼承되었음을 알았다.

둘째는 歷朝가 起伏하는 가운데서도 그때 書籍은 爆滅되었으나 天下의 遺書를 收集하여 새로운 內容의 圖書가 生産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儒學은 점차 그 기틀을 確固히 하여 中國思想의 源流가 되었다.

셋째로 從來에는 書籍의 材料가 竹筒本이던 것이 蔡倫이 製紙術을 改良함으로써 종이 사용이 점차 一般化되어 南朝에 이르러는 書冊이 代(竹)나 나무이던 것이 종이로 옮겨 간다는 結論에 到達한다.